

# “맞춤형 배부 최선을 다하겠다”

### 군산시, 도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등 직접 방문 교부 예정

군산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지급 중인 도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배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지난 12일 현재 지급대상 2만7,677명 중 95.8%(인 2만6,4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약 210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맞춤형 배부는 도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중 거주불명등록자 및 재외국민 등을 제외하고 여건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이 제한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재난지원금 미수령자의 지급을 위해 관내 9개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읍면동 미수령자 명단을 대조, 지급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병원에 직접 방문해 교부 예정이다.

또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세대 등 일반 거주자 중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및 자생조직 등을 통해 소재 파악 후 신청 안내 및 대리신청 등으로 지급하고, 주소지

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률 100%를 목표로 시민 홍보 및 맞춤형 배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용기한인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미신청하신 시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률 100%를 목표로 시민 홍보 및 맞춤형 배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용기한인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미신청하신 시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익산시,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추진

익산시가 중증장애인 시설인 홍주원의 이전 입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홍주원의 이전 반대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시설의 이전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인권위가 ‘장애인 개개인 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만큼 주민 실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홍주원이 이전할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대화나 협의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시는 인권위 해석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행위 시정을 주민들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집회중단 요청, 반대중단 촉구, 권고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의 불가피한 행정처리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를 해

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시정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언어와 행위에 대해 최대한 자제를 요구하며 시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또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12억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주원은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 시설이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긴급점검 물 확보 총력

군산시는 최근 여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개야도 등 10개 도서 지역의 급수상황 긴급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월부터 8월 까지 올해 평균 강수량(88mm)이 전년 평균 강수량(178mm) 대비 51%로 줄어든 점에 집중해 빗물을 통한 원수 부족으로 도서지역 물 공급의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긴급하게 진행됐다.

이번 점검 도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개야도·죽도·명도 등 3개 도서와 한국수자원공사(전북본부)가 위탁 협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안도·관리도·어청도·연도·방죽도·두리도·밀도 등 7개 도서다. 시 관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다.

도서지역의 상수도 확보 상태를 비롯해 급수관로 누수 여부, 지하관정 작동상태, 비상 급수시설 이상 유무 등 총 32개 급수시설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시설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비안도 급수시설의 경우 유수율이 전년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 ‘풍수해대비 수돗물 비상급수 세부실행 계획’에 맞춰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풍수해대비 수돗물 비상

급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도서지역에 비상급수를 위해 관련 기관(한국수자원공사 소방서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주민 선박 급수 선박, 행정 지도선에 의한 비상 급수지원 등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도서지역의 상수도 및 급수시설은 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생계와 연결되어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원활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주)세아베스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 군산 세아베스틸, 2억 5000만원 지원 사회공헌 활동

군산시는 (주)세아베스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세아베스틸은 여름나기 성품으로 마스크 6만장, 모기포충기 350(3천만원 상당)개를 기탁했다.

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으로 매일 일정액의 임직원 희망 모금과 급여 할전 모금으로 후원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총 18억 상당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서현승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여 기쁘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준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노사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된 여름나기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전북대병원, 내실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군산시는 신임 제21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병원장은 지난 12일 군산시의회의(부의장)를 방문해 신임인사와 더불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시 사정동 일원 10만3,720㎡ 부지에 500병상,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555억원과 전북대병원 자

부담 1,297억원 등 총 18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와 무관하게 시는 203억원의 시비를 별도 출연할 예정이다.

김임준 시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열망하는지 살펴봐 주고,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에 전력을 다해 군산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실시

군산시는 자동차 검사일자를 기억하기 힘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차는 4년, 중고차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나 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 1년 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은 소유자의 의무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본인이 일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시와 교통관리공단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전안내서 및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있다.

사전안내서 염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장기출장을 많이 다니는 시민 등을 위해 휴대전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시, 도내 첫 QR코드 활용 전자문진표 도입

익산시는 코로나19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자문진표는 기존 종이 문진표에 비해 검사 대기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QR코드가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방문자들은 기존방식으로 종이 문진표를 작성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문진표와 종이문진표를 나눠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문진표시스템은 전북에서 첫 도입이며 익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운영된다.

이용객은 보건소에 방문해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코로나 검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문진표 도입이 대기시간 단축과 의료인력 업무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